

투데이 칼럼

문화 강국을 만들자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이다. 문화예술은 인간의 품격을 높이고, 감동을 주며,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과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고재旭  
수필가

지난 1960~1970년대의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발전과 사회간접자본의 구축 등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화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문화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사고 의식이 수시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예술은 인간의 품격을 높이고, 감동을 주며,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과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대한민국은 문화예술이 발달한 국가이다. 오찬연 이어온 찬란한 문화

는 가히 세계의 중심이다. 백제 금동대향로에 새겨진 5악사의 연주 모습에서 1400년 전의 수준 높은 예술을 짐작케 한다. 우리 문화의 잠재적 역량은 무궁무진하며 한류의 원천이기도 하다.

K-Pop이 불고 온 新한류 열풍은 뜨겁다. 드라마 콘텐츠가 1세대 한류를 이끌었다면 아이돌 그룹 K-Pop은 2세대 한류 열풍 한 가운데 있다.

미주 대륙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제대로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 강국이라는 말만 있지 1년 동안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는 국민이 많다는 점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요즘엔 버스나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휴대전화만 갖고 논다. 신문도 잘 안 본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화습을 촉진한다. 책을 읽는 것은 문명의 형성에 참여하는 일이며, 진화의 도정에 함께 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문화는 이제 한 나라 국민 모두가 즐기는 차원을 넘어 산업화된 지도 오래됐다. 프랑스는 이미 1984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를 '문화유산의 날'로 지정해 엘리제궁, 상원 의사당, 파리시청, 총리공관 등 명소 문을 열지 않은 공공시설을 비롯해 전국 주요 박물관, 미술관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가수 사이의 활약으로 자동차 수만 대 수출 효과를 본 것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의 문화는 투자효과가 무척 높은 산업이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생각이 있는 북부 요크셔의 황량한 고원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독자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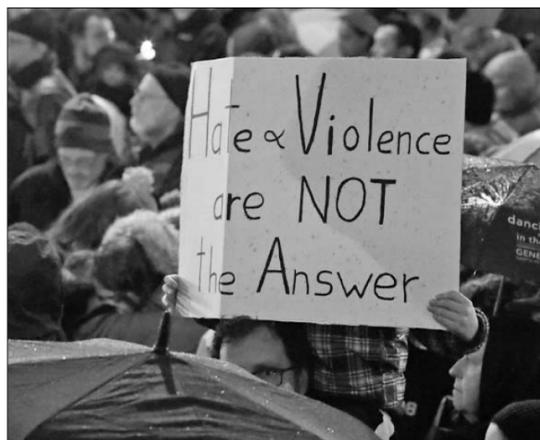
빗길 교통사고 예방 수칙

비가 오는 날씨에는 특히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행자나 다른 차들이 보이지 않고, 핸들이나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된다. 또,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력이 떨어져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도 한다.

이상 유지해야 한다. 차의 속도를 낮춰서 제동거리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차 간 거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빗길 안전운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조등을 켜야 한다. 전조등은 밤에 주행할 때 앞을 비춰주는 전등이지만, 비가 올 때에는 주야간 모두 켜 주는 게 좋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증오와 폭력은 답이 아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스쿼럴 힐에 있는 유대교 예배당에서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은 사건이 일어난 예배당 인근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증오와 폭력은 답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로버트 바우어스런 40대 남성으로, 범행 직전 "유대인 다 죽어라"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설

영세자영업자들 출구 찾게 도와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오늘이다. 전북도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겠다. 일자리 창출도 고용안정도 미덥지 않은 때라봐서 걱정되는 날이다. 갈수록 한국사회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금 도내 음식업계와 숙박업계의 경쟁이 치열하다. 호황을 누리면서 경쟁이 치열하다면 좋겠는데 다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에 치열하니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전북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날 영세상인을 돕겠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어찌됐는지 그 결과도 궁금하다.

은 것이다. 비가 많이 내린 이후라서 그런지 날씨가 어제 을씨년스럽다. 지금의 을씨년스러운 날씨만큼이나 경기 체감이 싸늘하다는 호소이다. 그래서 전북 지역의 영세상인 대다수가 지금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서울의 잘 나가는 이들은 판 세상을 구가하고 있지만 도내 영세상인들에게는 그게 그림의 떡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있지만 특별하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영세상인들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보고가 다시 생각난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직종만 바꾸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 않다. 전북도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들을 위한 출구 찾기는 시세를 탈 일이 아니다. 전북도는 그들과 함께 가겠다는 정신태도를 가져야 한다.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시켜 주려면 뭔가 구체적인 행보가 있어야겠다.

식탁 물가 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북도는 식탁물가 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정비구니 물가가 잇따라 인상됐고 또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금이다. 때가 때인지라 관심이 다른 쪽에 쏠려 있는데 이제 그 관심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폭도 들여다보고 식탁물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가을철 추수가 거의 끝나가는데 때 아니게 식탁 물가가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북도를 비롯해 경제 브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가가 어떻게든 언급조차 없으니 말이다. 그것은 물가 오름세에 아예 신경을 끄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물가 역제를 말한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반응 보다는 반응이 보기에 좋다.

식탁 물가의 오름세가 다른 물가에도 영향을 줘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는 작금이다. 그 가격이 처갓아도 너무 치솟았다. 폐업한다고 갑자기 30%나

인상된 것은 많이 안된다. 역대 그 어느 정부 때도 없던 대책들이 아닐 수 없다.거기에 덩달아 다른 물품도 오를 조짐이다. 이렇게 물가 인상이 러쉬를 이룬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도 자금이 없어서 서민들의 표정을 보면 어두운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전북도와 경제 브레인들은 서민들의 입장에서 물가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재래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곳에서 인증샷 사진을 찍는 행보는 재미가 없다. 그런 거 말고 실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물가 인상이 심상치 않은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다른 일반물가 인상이 한 자리 숫자라고 해서 느긋해서는 안된다.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물가 인상은 서민 경제를 자꾸하는 것이므로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정말로 인플레 러시가 있게 된다면 가난한 서민들은 삶이 판박해질 터이다. 쌀값 30% 폭등은 다른 물가들도 두 자리 숫자 인상을 열려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전북도에겐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을 터이지만 식탁물가 동향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두루 안정 방안을 도모하고 있어 달라는 당부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